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희망되길”

●조생구 목포한사랑병원장

도서지역·해외 의료봉사 등 선한 영향력 전파 앞장 장학금·기부 등 후원도...“의료 취약계층 돌봄 주력”

조생구(65) 목포한사랑병원장은 지역에서 ‘기부천사’, ‘봉사랑’으로 불린다.

조 원장은 그간 수습회에 걸쳐 국내 도서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통해 이웃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다. 또 자국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해외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사회 각 분야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신뢰 받는 병원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12일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늘 마음 한편에는 ‘조금 더, 조금 더’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래서 지난 2019년 11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계공동모금회의 ‘토크빌 소사이어티’를 모델로 해 만든 고액 기부 프로그램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조 원장은 이후 목포대학교에 장학금 2천만원, 전남대 의과대학에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으며 목포 YMCA에 1천만원, 공생원에 1천만원, 동민영아원·아동원·명도복지관·목포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목포기독교 역사관 건립기금 2천만원, 대한의사협회 화관 건립기금 1천만원, 전주 고 동문 장학회 1천만원,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2천만원, 목포 극동방송 사옥 1천만원 등도 후원했다.

조 원장은 매년 목포 가정사랑학교에 120만



조생구(왼쪽서 세번째) 목포한사랑병원장은 국내 도서지역은 물론, 해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곳곳에 장학금·후원 등 기부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목포 옥암동 취약계층 60가구에 라면(20입) 60박스(120만원 상당)를 기탁한 모습.

원, YMCA에 80만원을 비롯해 강진 단덕교회 및 단덕마을 의료봉사, 공생원·동민영아원·목포 아동원·명도복지관 등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전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목포시 옥암동 취약계층 60가구에 라면(20입) 60박스(120만원 상당)를 기탁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2005-2009년 목포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목포시 시민의 상을 수상하고 최근 국제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도 받았다.

조생구 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한사랑병원도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북부·동부경찰, 아동안전지킴이 직무교육

광주 각 경찰서들이 신규 아동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올해 신규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68명을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부경찰서 8개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초등학교 통학로 및 주변 놀이터, 공원 등 순찰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 비행 청소년 선도 등 활동을 수행한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도 전날 신규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17명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아동안전지킴이로서 지켜야 할 임무 행동 수칙 ▲아동보호를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 ▲활동 시 유의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 선발된 지킴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치안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영·장은정기자



장성 진남파출소, 교통사고 예방 이장단 회의

장성경찰서 진남파출소는 12일 “전날 진원면과 남면에서 교통약자 전용휠체어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출소 직원들이 각각 진원면사무소와 남면사무소를 찾아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소통했으며, 효자순 등 교통 홍보물을 배포했다.

진남파출소 관계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최근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늘(의심하고)·꼭(전화걸고)·또(확인하고)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전남산림·농기원·나무의사협 ‘돌발병해충 대응’ 협력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2일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 예방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 나무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산촌 돌발병해충 공동 예방·방제 등 정보 공유 ▲과수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진단·처방 ▲민간 나무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진단 장비 및 교육·심습장 활용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등록 기준을 갖춘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전국 기준 약 1천 400명이, 전남에선 57명의 나무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부문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진도경찰, 가수 송가인과 교통사고 예방 영상 제작

진도경찰서는 12일 “가수 송가인과 함께하는 참여·정성치안 활동으로 안전한 진도 만들기”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홍보대사인 송가인은 진도경찰서를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안전모 착용, 무단 횡단 금지와 신종·악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송가인은 경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진도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주민 간담회 관련 홍보

영상을 제공하는 등 경찰 행정에 높은 공로를 기여해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가수 송가인은 진도 출신으로 특히 지역민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안전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장단회의, 대한노인회 등 타 기관 방문 시 홍보 영상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 교통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동강대-광주전남혈액원 헌혈 협약...단체헌혈 참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하 광주전남혈액원)은 12일 “동강대학교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정기적 헌혈 동참 ▲헌혈문화 정착 지원 ▲건전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 활동 확산 ▲정령 문화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민숙 동강대 총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 학기 단체



헌혈을 진행했다”며 “생명나눔 헌혈 실천을 2024년 연중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광주교도소, 생명 나눔 확산 ‘헌혈 이어가기’ 행사

광주교도소는 12일 “전날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협조로 광주교도소 정문 앞 헌혈차량에서 진행됐다.

이날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은 “자그마한 도움으로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을 통해 이웃을 돕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헌혈을 한 직원 중 ‘헌혈 100회’를



앞두고 있는 이도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광주교도소는 전했다. /안재영기자

보성·광양경찰, 학폭 예방·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남 각 경찰서가 새학기를 맞아 지역 기관·단체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성경찰서는 12일 “보성초등학교와 보성남초등학교 일원에서 경찰, 보성군청,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질서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청소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양백승 보성경찰서장은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서도 최근 전남 드래곤즈 축구경기 및 개막식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 등록과 아동 학대,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병운 광양경찰서장은 “이번 시즌 경기 일정에 맞춰 홍보 활동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광양=양홍렬기자

초록우산, 전남노인회에 ‘조손가정 지원금’ 전달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이하 초록우산 전남본부)는 12일 “전날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이하 노인회 전남연합회)에 위기조손가정 지원금 61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초록우산 전남본부는 지난해 3월 27일 ‘아동·노인 복지 증진과 빈곤 조손가정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회 전남연합회는 분기마다 전남 22개 지회를 통해 위기 조손가정을 발굴·추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7가구를 발굴 및 추천해 57가정에 도움이 전해졌다.

정양수 노인회 전남연합회장은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세월이 흘러 몸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손주들에게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노인들에게 큰 힘이 돼준 초록우산에 감사하



다”고 말했다.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본부장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어르신들과 노인회 전남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한평생 국가와 지역을 위해 힘쓰고 나이 들어서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성학기자

담양 고서파출소 ‘AI 피싱사기 예방’ 홍보

담양경찰서 고서파출소는 “최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화 금융 사기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혁 고서파출소장은 고서면 이장단회의에 참석, 고근석 면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피싱사기 피해 사례와 수법을 담아 제작한 전단지 등을 전달하는 등 감성치안 활동을 펼쳤다.

가족·지인·친인척으로 접근하고 문자를 보낸 후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수법, 대면 편취형, 투자 사기, 부고장·정청장 사칭형 등 최근 유행하는 피싱사기 예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이어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와 전동차로 외출 시 밝은색 계통 옷 입기, 농기계 일몰 전 귀가하기 등 교통사고·봄철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권현우 담양경찰서장은 “농촌지역은 고령 거주자가 많고 소통 창구가 부족해 경찰이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정성치안 활동’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애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행복치안, 정성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